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판

VOL. 8
KT노동조합 소식지



임금·복지 확대로
행복한 일터 실현을!



오월의 의미

계절의 여왕 오월입니다.
천지는 신록으로 물들어가고
햇살은 나날이 싱그러움을 더해갑니다.

꽃향기가 짙어질수록 산그늘이 깊어가는 오월은
어느덧 양극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따스한 사랑이 머무는가 하면
5.16군사정변과 5.18민주항쟁 같은
시대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절정의 춤사위를 거두는 봄의 몸짓이자
여름의 징검다리인 5월은
그래서 더 찬란하고 한층 빼아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오월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가야 할 앞날이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단체교섭입니다.
13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성공적인 교섭을 위해 결의에 찬 각오로 섰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봄날을 지나는 동안 영글어 갈 것을 의심치 않으며
단체교섭에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뜻깊은 오월, 피어나는 붉은 장미처럼 타오르겠습니다.

Contents

KT노동조합 소식지 vol. 8



04 커버스토리
2019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08 Focus
UCC, 2019 정기 총회 개최

10 이슈&사회 1
반차내길 잘했어!

12 이슈&사회 2
5G 시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한목소리

14 현장속으로
야구장에서 만난 5G "실감나요"

18 Inside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언제쯤 통과될까

20 KT, KT人
초능력 5G를 구현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

24 Check-in
가짜뉴스도 믿게 되는 'SNS 확증편향'

26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일자리 지키고·놀이기와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

28 카툰
2019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30 KTTU NEWS
노동조합, 전국 지부에서
출근선전전 강행 외

34 독자후기 및 퀴즈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임금·복지 확대로 행복한 일터 실현을!

대의원 265명 참석, 4개 안건 심의 의결

‘2019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KT지리산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전국 대의원 269명 중 265명이 참석한 올해 전국대의원대회는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KT노동조합 간부, 그룹사 위원장단, 그리고 황창규 회장과 회사 경영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전 9시 30분 노래패 꽃다지의 문화공연으로 포문을 연 행사는 김해관 위원장과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강당에 모인 대의원 일동은 먼저 9to6 캠페인, 임금 피크제 전면 재협상, 대학자녀 학자금 부활, C/S직 일반직 전환 등 주요핵심공약 쟁취를 위한 활동과 전국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등의 다양한 조직 강화 활동, UCC글로벌 봉사활동 및 아현사옥 화재에서 보여준 위기대응 능력 등 지난 2018년 한해 숨 가쁘게 달려온 노동조합의 자취를 되돌아보는 영상시청으로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조깃발이 입장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한통노조가’를 힘차게 부르며 사전행사가 시작됐고, 이어 우수지부 및 우수지부장 수상이 이어지면서 수상자들에게 표창패와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와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가운데 통신시장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5G를 선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KT는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등의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서야 하고 아현통신국사 화재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정부통제, 고객의 높은 요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부응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이며 이에 대해 회사가 보다 확고한 태도로 존중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회사는 현재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어려운 시점에 올라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조합도 경영의 한 주체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며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완성으로 행복한 일터 실현의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창규 회장도 축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지금 세계 통신업계는 KT를 주목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 임직원의 헌신이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올 한해도 KT의 앞날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보지만 노사가 함께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조의 전폭적인 협조와 신뢰에 감사드린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명실상부 최고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철의 노동자’ 제창으로 1부 사전행사를 마치고 2부에서는 김해관 위원장을 의장으로 본대회가 시작됐다. 본대회는 성원보고, 안건 심의 및 의결, 기타토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한 시간여 동안 이루어졌다.

이번 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은 ▲2018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 ▲2019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 ▲규약 개정 ▲조합임원 인준에 관한 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고, 3호 4호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 각각 찬성 264표 반대 1표로 인준을 선





포했다. 결의문 채택을 마지막 순서로 ‘2019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투쟁의 현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폐회했다.

김해관 위원장과의 대화시간 가져

한편 2019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본행사에 앞서 전날인 20일 오후 2시부터는 대강당에서 입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강연과 김해관 위원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입소식에서 양정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든든한 동지들이 계셨기에 지난 한 해 잘 헤쳐 올 수 있었다. 2019년에는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지만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다면 우리는 그 소임을 훌륭히 완수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의원들의 입소를 환영했다.

이어진 강연은 이인수 명인서원 대표의 ‘소통의 인문학’,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노동정세와 노조의 역할’, 그리고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장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세 차례 이어졌다.

이인수 대표는 강연에서 소통하는 리더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와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과 실천”이 함께해야 함을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고, 이정식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역설하고, 김경희 원장은 “작은 빈틈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해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저녁 8시 30분부터는 ‘김해관 위원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단 회 성격의 이 자리에서는 대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장이 이에 답변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김해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식으로 시작해 9to6 캠페인, 아현사옥화재, 조합원총회... 뒤돌아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함께 계셔서 잘 보낸 한 해였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조합원 모두가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제도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하고, “노동이사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중에서 노사 간 합의로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영광일 것이다. 올해를 계기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진다면 조합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리라 본다”

고 말했다.

또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방본부별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기된 약 88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대의원들에게 배부한 별도의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카페테리아 복지, 노동이사제 등 4월 교섭준비를 대비해 앞으로의 다양한 개선사항과 노조활동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과의 대화의 시간은 전 간부가 올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힘찬 결의를 다짐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INTERVIEW

“KT노동조합의 동력은 조합원들의 격려와 관심”

| 강원지방본부 조직국장 박준수 |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준수 국장. 강원지방본부의 조직국장으로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박준수 국장은 마지막이 될 이번 대회가 가슴 벅차다. 2019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우수조합원 수상자이기도 한 그에 게서 지난 소회를 들어본다.

박준수 국장은 2012년 11대 집행부 시절 지부장에 선출되면서 노조간부의 소임을 시작했다. 당시 후배들은 사명감 투철한 노동조합 간부가 되어 조합원의 권익과 크고 작은 고충을 개선하는 데 그가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바랐다. 후배들의 권유와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작된 간부생활은 남다른 각오를 다졌음에도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였다.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물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13대 집행부에 들어 김해관 위원장 아래 함께 일해 온 날들은 ‘노조를 노조답게’ 만들겠다는 김위원장의 철학에 공감하며 믿고 따랐던 시간이었다. 김위원장이 지방 위원장 시절 조합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순회를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그는 중앙 위원장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김해관 위원장의 그런 점을 높이 샀다.

“이전 위원장님들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특히 김해관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거 전 공약을 철저히 행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단체교섭 후에는 주변 조합원들로부터 ‘투쟁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격려를 유독 많이 받았다. 특히 9to6 캠페인으로 이른 아침부터 전단지를 돌릴 때는 조합원들이 따뜻한 음료를 손에 꼭 쥐여주며 파이팅 구호를 외쳐주었다. 조합원들의 진심어린 응원 한마디는 그가 지금껏 노조간부로 일해 온 시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의 하나로 기억된다.

올해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퇴임을 앞둔 박준수 조직국장은 마지막으로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집행부 2년차 핵심과제인 카페테리아 복지 도입에 꼭 성공해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께도 노동조합에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관심은 KT 노동조합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UCC, 2019 정기 총회 개최

2018년 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 등 의결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공동체 만들자

기업간 노사공동 나눔협의회 UCC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 2019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UCC 회원사 등 20개 기업과 공공기관 노사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공동 나눔협의회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4월 18일(목) 오후4시 동대문 노보텔 호텔에서 UCC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사업결산과 2019년 사업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사 노사대표와 이용득 국회의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는 UCC주요행사 동영상을 시청하는 'UCC가 걸어온 길'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대표 감사인사,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UCC협력 선언문 채택, 총회개최 축하를 위한 축하, 의

결 진행,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양정우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UCC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회원사 간의 교류와 신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며 "UCC가 좀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공헌을 기조로 여러분과 연대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UCC의 노사공동 사회공헌모델을 사회 전체로 확산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UCC 자문위원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서 UCC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유엔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UCC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회에서 UCC와 한국노총은 '나눔문화 선포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두 단체는 더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등 국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산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된 삶과 다양한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IT, 통신, 환경, 농촌, 의료 등 UCC의 사회적 봉사 활동을 함께 확산함과 동시에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하는 협력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정우 KT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국회의원

한편, 2011년 발족한 UCC는 환경캠페인, 글로벌 봉사활동 등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기 힘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UCC는 2014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 지난해 2월에는 UN으로부터 선도적 사회공헌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KT노동조합은 한국과 베트남을 화상회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결혼이주여성을 현지 가족과 상봉할 수 있게 하는 등 글로벌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8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UCC의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지금껏 베트남 현지 가족과 화상 상봉의 기회도 가졌다.

UCC는 지난 3월 7일 전남 여수에서 2019년도 UCC전략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UCC총회 일정을 비롯해 7월 중 진행할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일정계획 등 활동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총회 결의로 가입 승인된 회원사(20개) 목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T | 경기도시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국립공원관리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한국소비자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반차내길 잘했어!

문득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권태가 있다. 반복되는 야근과 스트레스. 충동적 일탈을 감행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럽다 느껴지고, 계획된 휴가가 아닌 바에야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도 없는 신세. 직장인이라는 아직 떼지 못할 딱지를 붙이고서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반차’. 그것이 충동이든 계획적이든 반나절의 휴가에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즐겁다.

햇볕도 제대로 못 쬐고 사무실에서 업무에 열을 올리는 일상이 그 무엇보다 행복한 때도 있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쥔 채 점심 시간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동료들과 웃으며 걷어가는 내 모습에 어느 취업준비생은 아마도 부러움에 앞서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위 짬밥이 쌓인 직장인라면 헤아리고도 남으리라. ‘땡’ 하면 일제히 찬란한 콘크리트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며 그렇게도 환히 웃던 그 웃음의 의미.

사실 나는, 그저 바깥에 나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다. 반일의 휴식이 이다지도 절실할 줄은 몰랐다. 그만큼 지쳐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요즘처럼 꽃피는 봄이면 머릿속에는 ‘반차를 쓸까, 말까’라는 갈등이 반복되고 반차를 쓰지 않으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만 같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다.

TV화면에서나 볼 법한 근사한 일탈은 아니더라도, ‘소확행’이라 하지 않던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작고 특별한 일들로 반나절의 시간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전시회나 영화관람을 즐기고, 친구와 가까운 시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평소 눈여겨 봐두었던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고, 맑은 하늘을 보며 무작정 걷거나 서점에 들러 책을 뒤적이며 쇼핑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낮잠을 푹 자는 건 또 얼마나 달콤할까. 설사 기대했던 것보다 식당의 음식이 값비싸고 맛없을지라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면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커피 한 잔에 창 너머로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노라면 미소가 절로 나와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쉬울지도 모른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반아 주말과 함께 3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월차에 비해 반차는 오전 또는 오후만 쓴다. 연차나 월차에 비하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가치는 배가 된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충동’이나 ‘낭만’ 따위는 왠지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런 건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담배 연기와 소주 한 잔에나 어울리는 안줏거리 혹은 철없는 그 ‘무엇’이다.

학창시절 야간자율학습이나 대학 강의 수업을 빼먹는 것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행동 자체가 즐겁기도 했다. 그건 불안한 청춘의 작은 특권이자 낭만이였다. 세월이 흐르고 눈가에 늘어난 주름만큼 삶은 안전해졌을지 모르지만 이따금 철없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심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도 같은데 책임과 의무라는 사회적 약속을 어깨에 짊어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충실’한 인간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쳇바퀴 도는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기름칠이 필요한 법. 뼈격대고 뺨뺨해서 무력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이리저리 살펴볼 잠시의 여유가 필요하다.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 대세인 요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일휴가는 바람직하다. KT노동조합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실현’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자발적으로 업무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로 통한다. 일에 대한 사기를 올리는 데는 연봉 상승도 필요하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휴식이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이 아닐까.

<일개미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한다. “느닷없이 현혈이 하고 싶다거나 컨디션이 영 안 좋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랗다거나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직원이 반나절쯤 쉬는 바람에 회사가 망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목적이 있든 없든 사유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휴식이 절실했던 당신은 반나절의 쉼 후 에너지 가득한 가슴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반차가 이렇게 행복했던가’ 라고.

반차 활용 가이드라인

‘반차’는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인 4시간을 연차로 사용하는 ‘반일휴가’다. 개인적인 사유나 업무로 인해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없을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출근을 선택해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전 반차’는 용무 후 출근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 오전 업무 후 퇴근하는 ‘오후 반차’를 선호한다. 반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연차 1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반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후 반차휴가제도를 보장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차를 세분화해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5G 시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한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첫 5G 이동통신요금제를 반려하면서 자율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소비자는 이통사의 요금경쟁에 반색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이동통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처음 휴대폰이 개통된 1988년 이후 5G까지 이동통신은 30여 년의 세월동안 진화해왔다. 하지만 이통 규제의 거듭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정 이후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데, 바로 ‘통신요금 인가제’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신규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약관 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쳐 요금제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야 하는데 비해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

3사 5G요금제 5만 원대부터 제공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포함한 5G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3~4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천원에 150GB, 9만5천원에 200GB, 12만5천원에 300GB 등 3종 요금제 인가 신청을 했지만 중·소량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이후 5만5천원에 5~9GB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한 끝에 인가됐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취지는 통신 시장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또는 지나치게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마디로 경쟁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이통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지금 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이통사 요금 수준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 범위를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이후 LG유플러스는 같은 날 바로 5G 요금제를 신고하고 무제한 데이터 5G요금제를 공개했다. KT 역시 같은 날 8만원에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이며 공세를 높였고, 이에 SK텔레콤도 요금제를 재신고하고 데이터 완전 무제한 프로모션을 추가해 5G 요금 인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인가제 존폐, 관련 법안 계류 중

이통3사의 이 같은 치열한 요금경쟁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소비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때문에 통신사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첫 5G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경쟁이 이통3사의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 인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 자율권을 늘리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시장자율경쟁에 맡겨



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난 2016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가제를 폐지해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다’고 말한 바 있고,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성태 의원, 박선숙 의원, 변재일 의원 등 여야 구분이 없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인하하는 상황만 반복돼왔다. 돌이켜보면 이동전화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된 것이나 3G, LTE로의 세대전환은 모두 정부의 독촉이 아니라 후발사업자들이 주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금 인가제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편익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SK텔레콤의 5G요금을 인가하기 전에 KT나 LG유플러스로부터 5G 요금신고를 먼저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 요금 사전규제를 없애고 요금 담합 등 위법이 발생하면 경쟁당국이 중지명령 등을 내린다. 이제 5G 상용화에 맞춰 인가제 폐지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방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구장에서 만난 5G “실감나요”

수원KT위즈파크 ‘5G체험존’ 가족 방문기



강서무선운용센터 안양엔지니어링팀
안형진 조합원

5G서비스 최적화와 안정화를 담당한 엔지니어 안형진 조합원은 오늘따라 마음이 들뜬다. 최신기술을 적용해 ‘5G 스타디움’으로 탈바꿈한 KT위즈파크를 가족과 함께 온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왠지 야구팬의 즐거움보다 KT인으로의 자부심이 앞선다. 야구장 내 마련된 5G존의 다양한 서비스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래 기술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마법 같은 공간. 경기장 곳곳 시선이 닿는 곳마다 5G 서비스를 시행하기까지의 고된 노력과 도전의 날들이 떠오른다.



눈과 귀가 즐거운 5G 체험존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가 있던 4월 17일. 수원 KT위즈파크 앞 광장은 평일이었음에도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하는 야구팬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경기관람까지는 앞으로 한 시간여를 앞둔 시각이었지만 안형진 조합원 가족은 이곳의 특별한 체험, 바로 5G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았다. 잔걸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외야에 마련된 5G 체험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KT 5G의 특성을 재미있게 표현한 ‘당신의 초능력 5G’라는 슬로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체험존은 각각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5G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 안형진 조합원 가족은 ‘GiGA Live TV’ 앞에서 VR기기를 착용했다. 실제 야구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역동적이고 생생한 느낌 덕에 실제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 VR 컨트롤러를 연신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가족들은 연신 웃음이 터진다. 바로 옆 부스에는 나만의 3D 아바타를 만들고, 영상통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꾸미기 기능을 체

험하는 ‘narle’을 비롯해 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으로 5G 초고화질 라이브 방송을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는 ‘5G e스포츠 라이브 APP’도 마련되어 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그나로크 클릭 H5’와 ‘러브 레볼루션’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5G 스트리밍 게임’, 그리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로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프로야구 Live’ 까지, 안형진 조합원 가족은 5G 체험존 곳곳에 마련된 KT 5G 서비스를 마음껏 즐겨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부심으로 가득한 ‘프로야구 Live’ 서비스

안형진 조합원은 이처럼 다양한 경기장 내 5G 콘텐츠 서비스 중에서도 특별히 자부심을 느끼는 기술이 있다. 바로 ‘포지션 뷰’, ‘매트릭스 뷰’, ‘모션 트래킹’ 등 기존 중계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점과 각도로 화면을 보여주고 자세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프로야구 Live’ 서비스다.

“‘포지션 뷰’ 기술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타자와 투수시점 카메라 외에도 7개의 UHD급 초고화질 카메라를 추가해 동시에 송출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구장 전체, 덕아웃, 응원석, 1루와 3루, 내외야 등 총 9곳에서 보는 듯한 실감형 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구장에서 응원하는 기분이 들게 하죠. 또 40개의 HD급 초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270도 타임 슬라이스 영상을 구현하는 ‘매트릭스 뷰’ 서비스는 마치 전문가처럼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FTS(필드 추적 시스템)과 PTS(투구 추적 시스템)기술을 활용해 공과 선수의 이동 궤적을 데이터와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모션 트래킹’도 5G 기술을 접목시켜 구현한 기술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G체험존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목이 마르다. 이럴 때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로봇 카페. 5G 체험의 연장선인 이곳에서는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로봇 카페에서는 원하는 음료의 버튼을 누르면 로봇 팔이 알아서 척척 음료를 서빙한다. 적당한 양을 컵에 담아 깔끔하게 전달해 주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다.

또 하나, KT위즈파크는 KBO 구장 가운데 최초로 지난 시즌 홈 개막 경기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저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또한 이번에 업그레이드됐다.

“더 나아진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에도 자부심이 큼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불편한 날들이 많은데, KT는 경기장 곳곳에 8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10분마다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중석 곳곳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인공강우와 대형 공조기 강도 조절로 경기장의 미세먼지 수치를 떨어뜨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야구팬들은 보다 쾌적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특히 타 구장에 없는 특화된 서비스여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 말부터 5G 장비구조 실물도 없는 채로 추운 겨울 날씨에 현장 옥상을 오가며 설계한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5G 기술 상용화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앞장서는 일입니다. LTE보다 적은 인프라와 3.5GHz의 높은 주파수로 5G 커버리지를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5G망 설계를 수없이 리뷰하고 토론했죠.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019년 3월 말 5G 초기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품질 개선처럼 아직 보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조합원은 여기에 더해 향후 5G망 추가 구축도 현장 고객 중심의 무선망 설계로 완벽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체험을 마무리할 때쯤 어느덧 경기가 시작되어 가족들은 스카й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야구를 보면서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쌓아갔다. 9to6운동의 정착으로 퇴근 시간이 앞당겨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안조합원은 KT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체가 뿌듯하다. 그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앞장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그는 조합원들과 가족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9to6의 정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저녁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즐거운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위험한 일을 참 많이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복지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더 좋은 회사가 돼서 함께 행복을 나누면 좋겠네요. 글로벌 5G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KT노동조합원과 가족 여러분,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한마음이 되어 행복한 KT를 만들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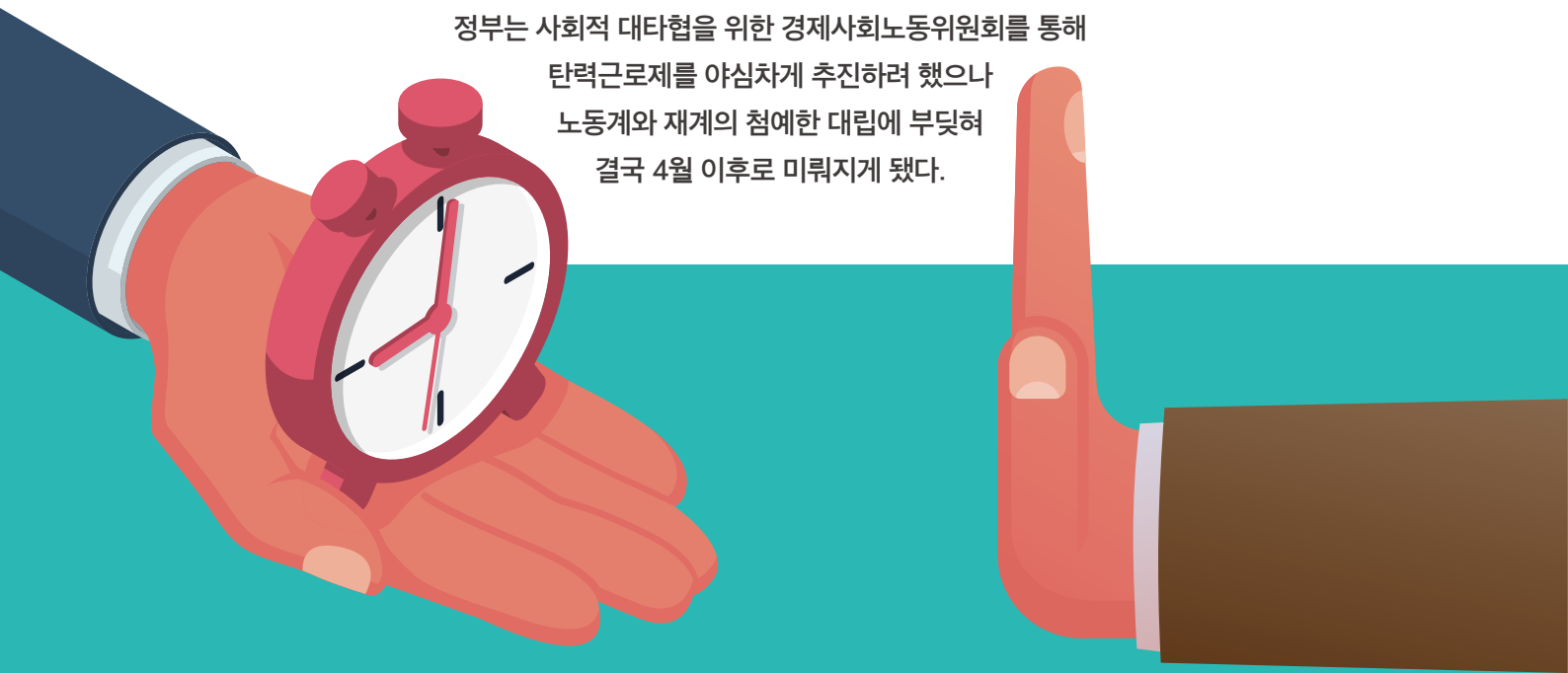
5G망 추가 구축 완벽하게 진행해 갈 것

안형진 조합원은 강남네트워크운용본부 강서무선운용센터 안양엔지니어링팀 소속이다. 2001년 KTF로 입사해 2G부터 3G, LTE를 거쳐 현재 5G 무선 네트워크 현장 최적화 업무를 담당해온 무선이동통신분야 베테랑이다. “LTE와 5G 설계, 구축, 품질 최적화 운용으로 고객 체감 품질을 확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KT가 세계최초 세계 1등 5G 리더의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부서와 원활하게 협업하면서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3월 ‘초능력 5G’ 시대를 선언한 이후 차별화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5G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데, 주요 이동 경로까지 고려한 국내 최대 5G 커버리지를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안 조합원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최고의 5G 기술 서비스의 상용화와 최적화를 위해 고생도 많았다고 토로한다.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언제쯤 통과될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화가 무산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야심차게 추진하려 했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대립에 부딪혀
결국 4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의 뚜렷한 온도 차

하나라도 지킬 것인가, 하나라도 더 뺏어올 것인가. 탄력근로제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계와 재계의 투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노사위를 구성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우선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하는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재계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비용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은 연간 12조1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이중에서 71%에 이르는 8조600억 원을 부담하며 기업의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이 필요한 때 초과근로수당을 비롯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조종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겐 탄력근로제가 꽤나 큰 이득이다. 일선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적용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입장에선 최대한 탄력근로기간을 늘려야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 확대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에선 임의로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으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카드, 과연 성공할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19일 경노사위에서 합의된 안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제도를 시행할 땐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이 6개월 동안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는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측과 노동자 개인의 1대1 협상은 완전 무효화된다. 또한 11시간 연속휴식시간과 보전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이를 어길 시 할증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됐음에도 경노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노총은 장내에서 더욱 큰 요구를 관철시키려 진을 치고 있고, 경노사위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장외에서 대정부 압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노동계와 재계가 칼날같이 대립하고, 여야는 총선을 의식해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타

협이란 명분으로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로선 이런 방식의 대화를 통해 얻는 이득이 매우 클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지향하는 경노사위 같은 방식은 소속한 기관과 단체가 다원화된 만큼 실패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쉽게 말해 ‘변명거리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 태세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공전되면서 경사노위는 지금까지 심도 깊은 전체회의를 일곱 차례나 열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계는 탄력근로 기간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양보한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탄력근로기간이 6개월로 확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노동계의 핫이슈인 탄력근로제가 4월 이후 국회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능력 5G를 구현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선구자이자 국민기업인 KT가 지난 4월 역사적인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다. KT는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5G First'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핵심기술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기업 KT가 열어갈 '초능력 5G' 시대의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

5G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직전인 지난 4월, KT는 5G 네트워크 전략과 핵심기술 설명회를 가졌다. KT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들이 고품질의 5G 서비스 만족을 위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최고속도, 국내 최대 커버리지, 초저지연 기술, 배터리 절감기술로 집약되는 5G 서비스의 핵심기술을 통해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초능력 5G'를 실현하기 위한 KT의 핵심기술을 선보이며 5G 시대를 이끌어갈 자신감을 내비쳤다.



5G 고객을 먼저 행기는 '5G First'

KT는 5G 서비스 전략으로 '5G First'를 내걸었다.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한편,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 위주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5G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고객과 약속했다. 현재 통상적인 5G 서비스는 기존 LTE 네트워크와 맞물려 있어 속도 지연 현상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LTE는 5G가 더해져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생기는 반면, 5G는 상대적으로 느린 LTE 탓에 전송속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5G의 가장 큰 특성인 '초저지연' 기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한 대의 기지국이 제공하는 최고 속도를 전체 수용 가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의 LTE 사용자망이 5G와 결합된 상태인 탓에 속도가 향상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KT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바로 '5G First' 전략이다. 5G First 전략은 5G 기지국의 자원을 5G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해 최대한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실제 5G 삼성전자의 3.5Hz 기지국과 갤럭시 S10을 이용해 최고 전송속도 1Gbps를 구현하며 필드에서의 최고성능을 구현한 바 있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커다란 성과를 보인 만큼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을 뒤덮는 국내 최대 5G 커버리지

5G 서비스에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커버리지다. KT는 5G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최고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지역 간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구 밀도에 따른 트래픽 뿐 아니라 고객들의 이동 경로까지 섬세하게 반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5G 커버리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5G 커버리지 전국망 확대를 목표로, KT는 지난 4월 상용서비스 시작과 함께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대형 쇼핑몰이나 유원지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전국 70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 구간은 물론 전국 6개 공항에도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KT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산학연 협동을 위한 5G 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전국 464개 대학교 및 주변 지역과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공업단지 및 경기도 화성의 K-City 등 주요 산학연 현장에도 5G 커버리지 구축을 완료했다. KT는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전국 85개시 대부분 지역을 5G 네트워크로 커버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지하철 및 관공서, 대학병원 등의 주요 건물 내에도 고품질의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저지연 5G 서비스로 고객만족 업그레이드

지난 4월 설명회 자리에선 IT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4가지 키워드 중 하나인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술’이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란 5G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을 가장 가까운 인접 에지(Edge) 통신센터에서 처리해 기존 18ms 정도의 전송 지연을 10ms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연 기술은 가령, 약 3MB의 데이터 수신을 필요로 하는 웹 페이지를 로딩할 때 약 100여 회의 송수신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송수신 과정 사이에 발생하는 전송 지연(Latency)이 웹페이지 로딩 시간을 좌우하며 전체 서비스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다. KT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송 지연시간(Latency)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을 적용시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개의 에지



(Edge) 통신센터를 기반으로 지연시간을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KT 5G 이용자라면 누구나 전국에 고르게 분산된 8곳의 통신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균일한 초저지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 배터리 45% 획기적 절감

KT는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배터리 소모라는 것을 착안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배터리 절감기술을 채용했다. C-DRX(Connected mode Discontinuous Reception)라 불리는 이 기술은 배터리 용량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최대 45%까지 늘려주는 방식으로 5G 네트워크에선 세계 최초로 KT가 실용화에 성공했다.

C-DRX의 핵심은 데이터 연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 사용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사용을 최소화하는 모드로 변환함으

로써 배터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C-DRX는 높은 배터리 효율성이 검증되어 전 세계 많은 이동통신사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자칫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KT는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와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용자들이 최상의 무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배터리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KT의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별도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해당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배터리 사용시간 또한 늘어나는 보너스 혜택을 얻게 됐다.

KT가 국내 통신환경에 최적화시킨 C-DRX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갤럭시 S8 모델의 유튜브 동영상 연속 스트리밍 방식으로 배터리 효율성을 입증받았다. C-DRX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9시간 57분에서 최대 10시간 36분 지속된 반면, C-DRX를 적용한 이후에는 최대 14시간 24분까지 지속됐다. 배터리 이용시간이 최대 4시간 27분(45%)이나 증가한 것이다.

TIP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KT만의 차별화된 기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5G 서비스에 나선 KT의 자랑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T는 개인과 기업 모두 안정적인 통신과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안기술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이동통신 업체들도 부러워할 KT의 첨단 5G 기술을 둘러보자.

● 기가 스텔스 (GiGA stealth)

센서, CCTV 등 IoT 디바이스 IP 존재 자체를 보이지 않도록 하여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

지역, 시간, 활용처 등 기업별 요구에 맞는 가상 전용망을 구축해 제공하는 기술. 전용 네트워크 자원할당으로 완벽한 네트워크 분리와 보안이 가능하다.

● Dr. Wais(AI SON)

5G WING 등 자가 품질진단 통해 AI 기반 자동 최적화 및 자가 장애 복구로 최상의 5G 무선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

● Dr. Lauren

무선망, IP망, 전송망, 선로 등의 회선 장애, 선로 사고 등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예측 및 예방하는 기술.

● OPERA (Orchestrator towards Predictable, Elastic, Reconfigurable, Automatic)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자 니즈에 맞게 구성 및 통합 관리하는 기술.

● 홀로그램 (Hologram)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실제 눈앞에 존재하는 듯한 초실감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기가 트윈 (GiGA Twin)

소량의 데이터 기반 자체 학습으로 빠른 Digital Twin을 구현해 플랫폼 기반의 도메인을 확장하는 기술

● 정밀측위

GPS, WiFi, LTE, 5G, IoT Sensor 등을 융합하여 SW 기반 실내/실외 연속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가짜뉴스도 믿게 되는 ‘SNS 확장편향’

포털 이용이 줄고 유튜브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유튜브의 성공비결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골라주는 ‘알고리즘’에 있다. 문제는 편리하고 좋은 줄만 알았던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장편향의 함정이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필요 이상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주된 유통 경로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지목되고 있다.

네이버가 지고 유튜브가 뜬다

10여년 전에 UCC(User-Created Contents)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다지만 스타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은 UCC를 통해 자기만의 장기를 뽐내며 요즘 말로 소위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세계에 UCC를 열풍을 몰고 온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였다. 현재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IT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약 13억 개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전 세계에서 새로 업로드될 정도라고 하니 유튜브 관계자들조차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국내 포털 사이트의 위세는 크게 꺾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의 연간 총이용 시간이 유튜브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주가 역시 최근 1년 사이 34%나 급락했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갯튜브’라 부를 정도다. 예전에 포털에서 이루어졌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이슈를 한군데로 모으는 갈매기 역할을 유튜브가 대신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사용자들의 기호화 취향에 맞는 동영상을 찾아주는 ‘추천 알고리즘’이다. 특정 동영상을 시청하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유튜브에 잡아두고 있다. 사용자로서는 보고 싶은 동영상을 굳이 검색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만큼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커다란 광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사람들은 60.6%로 나타났으며, 이중 88.8%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SNS 사이트(20.9%)를 통해 가장 많은 가짜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서는 아울러 가짜뉴스 내용과 유포 형태를 추적해 연구하기도 했다. 연구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원인은 전달받은 사람이 확장편향을 통해 스스로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는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 언론사명, 기자 이름, 작성일이 명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과 SNS를 통해 ‘영국과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들, 비정상적인 탄핵운동 지적’이라는 기사가 사실처럼 퍼졌지만 가짜뉴스로 밝혀진 적이 있다. 마치 정식 기사처럼 꾸며졌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정치학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게임과 애니메이션 속 허구의 인물들이었다.

연구 관계자는 또 SNS를 통해 유포된 루머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객관적이 아닌 불확실하고 애매한 표현을 쓴다거나 오타와 어색한 문장이 눈에 띄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면 가짜뉴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유포시키는 기사는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공유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 관계자는 기사 제목이 필요 이상 자극적이거나 특정 집단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옹호하는지 등을 살펴보면 가짜뉴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5.18 북한군 침투설 유통경로는 유튜브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이 과연 한국사회에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유튜브가 추천하는 동영상이 확장편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결합하면서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예가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다. 정치적 극단에 자리 잡은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팩트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유포하고 있는데 그 주된 통로가 유튜브다. 더욱 큰 문제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편리한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장편향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에서 1,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4%가 유튜브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유튜브는 2천5백만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적인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확장편향에 따른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조사한 연구한 결과는 확장편향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12명 중 가짜뉴스를 접했다고 말한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일자리 지키고·늘리기와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일자리 늘리기’… 노사정 ‘일자리 상생모델’ 부각

2015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은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열쇳말로 경제·사회복지·노동 등 다양한 주제로 변주해 정책박람회를 열었다. 정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책 토론회였다. 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 부문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하면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소득주도성장 구호는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았다. 우려도 있었다. 당시 토론회장에서는 격론이 오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애매한 구호다. 임금주도성장이 맞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윤주도성장이 아닌 임금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이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주 제재와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이 늘면 빚 갚는데 쓰지 소비 안 한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 없이 임금만 찢끔 올리면 소득주도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고용에 훈풍! 소득주도성장 청신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고용은 줄고 저소득층 소득은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일까. 주장과 구호가 아닌 실증 통계를 살펴보자.

지난 3월 취업자가 25만명 증가했다.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를 비롯해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지난 4월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68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명(0.9%) 늘었다. 2월에도 취업자가 26만3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을 밑돌아 한때 3천명 증가에 그쳤던 지난해와 비교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요인도 취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만 15~64세 고용률은 66.2%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2월에

야 전년 수준을 따라잡았다.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청년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11.6%에서 10.8%로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은 1천410만2천명으로 42만3천명(3.1%) 늘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증가 폭이 20만명 대로 하락한 바 있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 감소와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적어도 2~3월은 고용이 예년수준보다 호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지표를 뜯어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실업률은 악화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부터, 30~40대 실업률은 문재인 정부부터 악화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



면 40대 고용률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줄어드는 일자리에 비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적다는 의미이다. 반면 고용의 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상용직 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숙박업·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에서 고용부진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렀던 수출·제조분야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임시직과 일용직이 대폭 줄었다. 이것이 고용부진과 소득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악화 추세는 2015년부터 진행돼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여파가 미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늘어났지만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요컨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명암이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세 바퀴로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용부진, 저소득층 가계소득 악화, 자영업자의 위기 등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가계소득을 늘리는 최우선 대책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다. 노동계의 입장에서 구체화하면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며, 노동존중 산업생태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질

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지난해 금호타이어·STX조선해양·GM 등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휘말리면서 중소하청·협력계열사 직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금호타이어·STX조선해양·GM의 정규직은 기업매각·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축소를 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로 인해 조선·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업 밀집지역(군산·거제·영암·창원·통영·울산)의 고용 및 자영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정부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대책에 집중해야 하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종전의 금융 중심·감원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선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유효하며,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만들기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광주지역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자동차 대기업을 유지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사례이다. 정부 또는 민간 주도가 아닌 노사정이 연대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민간 주도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만 고용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일자리 상생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연대는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과 맞물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성장과 구조조정 시대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하기 좋은 나라’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공약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비준과 이행은 노동존중 사회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존중사회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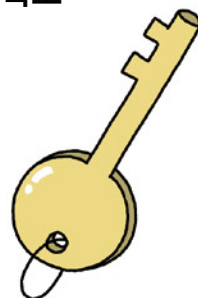
2019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1 조합원 재무컨설팅



2 생활관 시설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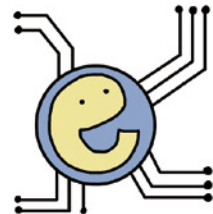
3 업무용 단말 구매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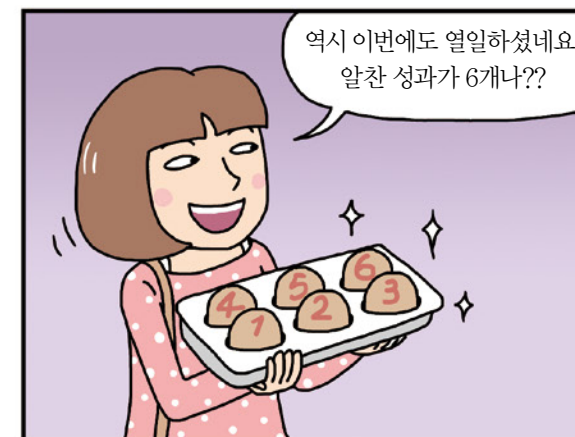
4 9 to 6 실천



5 전산시스템 추가 차단



6 통합리텐션팀 모니터 지급



KT TRADE UNION NEWS

노동조합, 전국 지부에서 출근선전전 강행



KT노동조합은 4월 16일(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국 각 지부 별로 일방적인 KT 차기회장 선임절차 돌입을 반대하는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아침 전국 각 지부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KT 차기회장 선임절차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노동조합 경영참여, 노동이사제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문구로 출근선전전을 전개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과 협의도 하기 전에 이사회가 느닷없이 차기회장 선임절차에 돌입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해관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아 KT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출근선전전에 앞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KT CEO에게는 사실상 회사와 조합원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므로 선임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CEO의 선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력을 일체 배제하고 KT의 미래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노동조합과 함께 KT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종사원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당차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CEO 선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4월 12일(금) 언론을 통해 KT 차기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결정 등 심의 의결



KT노동조합은 4월 15일(월) 5시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중앙상무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결정 ▲규약 규정집 발간 ▲노동조합 직원복무 및 보수규칙 개정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 계약 등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은 4개 분야 11대 요구안으로 노동조합은 이를 확정하기 위해 현 장순희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제 2노조인 새노조에서도 요구(안)을 제시한 바, KT노동조합은 이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회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9년도 단체교섭 4개 분야 11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분야	요구 안건
고용안정	1.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2.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	3. 임금인상 4%(고과인상분 제외) 4. 전사 5G 1등 달성을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5. 급식통근보조비 인상(3,000원)
복지	6. 복지기금 1,000억원 출연 7. 균형있는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완성 8. 출산장려금 신설(300만원) 9. 해외 수련관 신설
제도개선	10. 인사보수제도 전면 개선 - Pay Band 상한제 폐지 등 11.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한편,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오후 2시 전국 12개 지방본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현장 배식활동 및 긴급생계비·구호물품 지원



KT노동조합은 지난 4월 9일(화) 최근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도왔다. 해당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은 긴급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대책본부가 차려진 강원도 속초시 천진 초등학교를 찾아 주민을 위한 배식활동을 펼친 뒤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피해 주민을 돕자는 의견이 모여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KT노동조합은 성금 외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담반 운영



KT노동조합은 4월 2일(화)부터 2019년도 단체교섭 전담반을 가동하고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 및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전담반에 참여한 교섭위원들은 3박 4일간의 회의와 교육을 통해 2019년도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전담반 회의는 ▲KT 현 이슈사항 점검 ▲현장 고충사항 파악 ▲노동계 동

향분석 등으로 진행되며 ▲모의교섭을 통해 실전에 대비했다. 노동조합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은 “올해 있을 단체교섭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숙고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지난 4월 21일(일)부터 4월 24일(수)에는 전담반이 두번째로 운영, 4월 15일(월) 2019년도 제4차 중앙상무 집행위원회의에서 가결된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바탕으로 2차 모의교섭 및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4월 24일(수)까지 가동된 전담반은 4개 분야 11대 요구 안건의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주요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정당성에 기초한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교섭에서 참조할 수 있게 타 사업장 사례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은 모의교섭에 앞서 “더 이상 단체교섭 석상이 타협과 조정이 실종된 대결과 반목의 장으로만 비춰져선 안 된다”며 “우리는 구상과 전략을 갖고 당당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2019년도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업무용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관련 신청안내

2019년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결(2019.3.26)에 따라 업무용 단말기 교체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신청을 받아 접수 및 개통처리 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의결일(2019.3.26)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임원포함)
 - 전문컨설턴트, 청원경찰, 재직전출자 포함
 - 제외대상 : 계약직(일반, 임시, 파견) 및 `19년 3월 26일 이후 신규 입사자
- 품목 : 최신 5G 단말기(휴대전화)
 - 단말기(상세 스펙은 문서정책 자료실 참조)는 직원 부담금 일부 발생
- 진행일정
 - 신청 : 원활한 신청 및 배송과 개통을 위하여 최대 5차수로 나누어 접수 및 개통 시행

구분	접수신청	물량배송	5G개통	명의변경 및 분리과금
1차	3.29 ~ 4. 4	4. 6 ~ 4.12	4. 8 ~ 4.15	4.16
2차	4.11 ~ 4.17	4.19 ~ 4.26	4.22 ~ 4.29	4.30
3차	4.25 ~ 5. 1	5. 3 ~ 5.10	5.13 ~ 5.20	5.21
4차	5.20 ~ 5.31	6. 4 ~ 6.11	6. 5 ~ 6.12	6.13
5차	6.17 ~ 6.30	7. 3 ~ 7. 8	7. 4 ~ 7. 9	7.10

※ 자세한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정책] 자료실 참조

2019년도 전사 KPI 협의결과 발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1월 4일(금)부터 3월 28일(목)까지 2019년도 전사 KPI 협의를 진행한 결과 노동조합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1. 비용절감 지표 평가항목 제외

- 인건비, 안전관련비용, 수련관위탁수수료, 세탁비, 피복비, 공기구비품수선비, 부서운용비
- 비용절감으로 인한 직원복지 저하 불가를 지표 정의서 내 명시

2. 정도영업 및 9to6 시행의 평가지표 반영

- 성과관리지침 내 징계 및 패널티 명시, 부문경영계약 내 정도경영 명시

3. C부문 비계량 운영지표 명확화

- 비계량 비중을 최소화하며 현장 책임경영 유도

4. C부문 현장지표의 개선

- 직영시공 지표 기준변경(달성지표 및 목표하향)
- 품질감리 지표의 세부사항 조정

5. 부문별 협업지표 요구

-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한 공통지표 운영 “네트워크 DB정합도”

6. 2019년도 전사성과 평가시 노동조합과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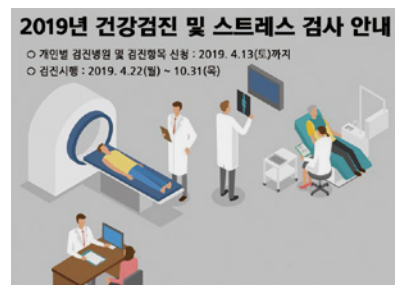
-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발생 시

7. 5G 목표수준 변경요구

- 목표수준의 변경 (50% → 전년 무선MS 43% 수준)

2019년 건강검진 시행 및 스트레스 검사 안내

조합원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검진일정

- 건강검진 시행 : 2019.04.22(월) ~ 10.31(목)
- 정산 및 검진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 관리 : 11.1(금) ~ 11.30(토)
- 검진비용
 - 만50세 이상(30만) ('69.12.31 이전)
 - 만35세 ~ 만50세 미만(20만) ('70.1.1 ~ '84.12.31)
 - 만35세 미만(15만) (1985.1.1 이후)
 - 배우자 만 50세 이상(30만) ('69.12.31 이전)
 - 배우자 만 50세 미만(15만) ('70.1.1 이후 출생)
- ※ 배우자 : 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 및 ERP 내 의료비 대상 등재된 배우

자 限 (등재 마감 기준일 : '19.8.25)

※ 제외대상 : 재직 전출자, 신입사원, 임시/파견계약직, '19.1.1 이후 입사자

- 특수검진 시행 추후 별도 문서 발동

- 스트레스 검사 병행

: ERP 검진신청 시 팝업 및 조직별 담당자를 통한 참여 안내

2019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3월 26일(화), KT노동조합과 회사는 KT본사 분당사옥 17층 대회 의실에서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 결과 ▲조합원 재무컨설팅 시행 ▲강북본부 생활관 철거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5G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9-to-6 철저히행 ▲전산시스템 추가 차단 ▲통합리텐션팀 보조모니터 지급 등 총 6개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동조합은 논의에 앞서 “상기 안건들은 노동조합 요구 이전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챙겼다면 좋았을 것들”이라며 “향후 회사가 더욱 능동적으로 현장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9-to-6 위반 사례가 발생할 시 관리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노사는 조합원 재무컨설팅은 2019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강북본부 생활관 철거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2019년 6월 말까지 대체시설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5G 단말기 구매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단, 본인 희망에 따라 개인명의로 전환한 직원에 한해 향후 법인명의로 재전환 불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9-to-6 철저히행과 관련, 노사공동 근로시간 준수노력 및 철저관리를 시행기로, 전산시스템 추가 차단은 업무시간 외 COMOS 시스템 차단을 5월 중으로 완료하고, 통합 리텐션팀 보조모니터는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카페테리아 복지 노사공동 연구위원회 회의

지난 3월 15일(금) 오전 10시 분당사옥에서 카페테리아 복지 노사공동 연구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전국 11개 지방본부 산하 총 119개 지부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현장에서 취합한 조합원 건의사항은 ▲



주택 마련·임차 대부기회 부여 ▲여행 항목 신설 요구 ▲결혼식 등 가계안정자금 대부기회 부여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독신자 의료비(건강검진, 자녀 대신 부모님 의료혜택) 지원 ▲연금저축 미 지원자 지원 요구 등이다.

노동조합 사업지원실장은 “세대별 조합원들의 건의 사항을 종합하면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장 및 조합원의 건의사항에서 도출된 사안에 방향성을 맞추고 노사가 함께 합리적인 제도로 풀어나가자”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및 복지 형평성과 관련하여 소외감을 느끼던 조합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도입을 위원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KT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혼조합원, 소수자 수혜 복지항목 운영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바, 노사는 이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세대별 복지 형평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련관 노사합동 실태조사 실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12일(화)부터 4일간 2019년도 수련관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인 수련관의 안전 및 취락시설에 대해 노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박충범 산업안전국장장은 대관령, 경주, 거제, 지리산, 도고 수련관을 차례대로 돌며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확인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 ▲시설 사용 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 개선대책 등을 점검했다.

111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9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참가



KT노동조합 전국 여성국장은 3월 8일(금) 오후 2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노총에서 주최하는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 ‘성평등, 노동존중’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한 해는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해였다”면서 “여성이기에 일터에서 겪는 차별 뿐 아니라 노조활동가로서 남성중심 사회와 조직에서 겪는 여러 차별이 여성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나 위원장으로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부산지방본부의 김미아 여성국장이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이 수여하는 ‘여성 노동자상’을 수상했다.

2018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KT노동조합은 3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2018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마치고 수감결과를 경청했다. 김동영 회계감사 대표위원은 “수감기간 동안 지출결의서와 각종대장, 예금통장 등을 자세히 살피며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합비가 예산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된 것은 물론, 장표 종류와 수감자료, 제반 서류 행정처리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해 지난 5일간 밤낮없이 회계감사에 임해주신 김동영 대표위원을 포함한 6분의 회계감사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한 뒤 “지적된 사항들은 빠르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